

사극의 진화

실존에 상상 더하기, 주류→비주류 중심이동



정통 대하사극에서 퓨전사극으로 이어진 역사드라마 트렌드가 최근에는 정통 사극의 분위기에 '빛겨보기'를 더한 방식으로 진화했다.

동학농민운동을 배경으로 삼은 SBS TV '녹두꽃'은 제목부터 녹두장군 전봉준을 연상케 하지만 주인공은 서로 다른 길을 택한 가상의 이복형제였다.

전라 고부군 관아 이방 백가(박혁권 분)의 막내 이현(윤시윤)은 조선의 메이지유신을 꿈꾸는 개화주의자였고, 장남이지만 서열인 이강(조정석)은 과거의 쫓겨난 처지고 새 세상을 열기 위해 봉기한 농민군 별동대장이었다.

물론 극에서 동학운동을 끌어가는 리더는 전봉준(최무성)이었지만, 주된 스토리는 이복형제의 엇갈린 삶에 집중했다. 가상의 두 젊은이는 모두가 아는 비극에 활력과 역동성을 더했고, 실존 인물 전봉준은 특유의 무게감으로 중심을 지탱하며 젊은 캐릭터들이 한바탕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

최근 첫발을 댄 JTBC 금토극 '나의 나라' 역시 조선 제1차 왕자의 난이라는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만 주인공은 평행인 핏줄의 서위(양세종)와 사복시정의 차남이지만 서열인 남선호(우도환) 역시 가상의 인물들이다.

'나의 나라' '녹두꽃'으로 본 최근 트렌드 권력자 아닌 서민 부각시켜 평등·정의 메시지

여말선초, 위화도 회군을 선택할 태조 이성계(김영철)와, 건국 후 피바람을 몰고 온 태종 이방원(장혁)의 이야기는 '용의 눈물' 시절부터 달고 달은 소재다. 그만큼 익숙하고 때로는 지겨운 듯한 플롯이지만 동시에 각 나라 신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가장 인간의 본성과 흥미를 자극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제작진은 이 목격당한 배경을 김영철과 장혁, 두 배데랑 배우에게 맡겨 소화하도록

하면서도 전면에는 '루키' 양세종과 우도환을 배치함으로써 젊은 시청자 취향에 맞는 극적인 요소와 스타일리시함도 확보했다.

'녹두꽃'과 '나의 나라'는 원톱이 아닌 두 남자 주인공을 내세웠다는 공통점도 보인다. 가상의 인물을 사극으로 끌어들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허술한 부분을 복수의 인물과 그에 따른 대립 구도로 채우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아울러 과거 사극 속 주인공들은 말 그대로 역사에 기록된 주류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서열 등 사회의 '비주류'를 내세우는 경향이 강하다. 평등과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는 요새 트렌드에 부합하기도 더 좋은 방법이다.

주창운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최근 저서 '역사 드라마, 상상과 애국 사이'에서 "사극은 기술(記述)된 상상의 역사이고, 작가는 구성된 역사의 흔적들 가운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선택해 허구를 만들어낸다"며 "역사의 소환과 재현 방식이 사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재배열된 맥락 속에서 시대 의식이 내면화된

다"고 적기도 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도 12일 통화에서 "초창기 사극은 주로 역사를 전달하는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상상력의 세계로 넘어왔다. 역사적 틀 안에서 나오는 사극이 가진 한계 때문이기도 하고, 역사에 대한 시각이 바뀐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과거 역사는 권력자들의 시각에서 쓰인 만큼 기록에서 소외된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그래서 상상력을 통해 역사 바깥에 있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가져오면서 사극의 경향도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 6억뷰 뮤비 3번째 '페이크 러브'도 돌파했다

그들 방탄소년단(BTS)의 '페이크 러브'(FAKE LOVE)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브 조회수 6억건을 넘겼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5월 발매된 방탄소년단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 뮤직비디오가 12일 오후 4시 19분께 6억뷰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디엔에이(DNA)', '불타오르네'(FIRE)에 이어 세 번째 6억뷰 뮤직비디오를 갖게 됐다. 이 곡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0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레코드산업협회(RIAA)에서 골드 인증을 받기도 했다. RIAA는 디지털 싱글과 앨범 판매량에 따라 골드(50만 이상), 플래티넘(100만 이상), 멀티 플래티넘(200만 이상), 다이아몬드(1천만 이상)로 구분해 인증한다. 또 이 노래가 수록된 앨범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캠퍼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해외 가수 최



BTS (방탄소년단) 'FAKE LOVE' Official MV

조회수 600,000,334회

초로 무대를 펼쳤다.

오는 26~27일, 29일 3일간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는 '러브 유어셀프: 스피

크 유어셀프'(LOVE YOURSELF : SPEAK YOURSELF) 투어 파이널 공연을 펼친다.

/연합뉴스

유폐레쉬·유산슬... 유재석 '놀면 뭐하니?' 화제 만발

MBC TV 토요 예능 '놀면 뭐하니?'가 유재석의 끝없는 도전으로 점점 화제성을 모은다.

유재석은 최근 '유폐레쉬' 프로젝트를 통해 드림에 도전했다. 그는 지난주 일산 MBC 드림센터 공개홀에서 독주회까지 열며 남다른 비트 감각을 뽐냈다. '유폐레쉬' 음원에 참여한 뮤지션들도 한자리에 모여 그를 응원했다.

유재석은 특히 '마왕' 고(故) 신해철 내레이션, 이승환과 하현우의 노래에 드럼 연주를 더하며 추모 공연까지 무사히 마쳤다. 독주회는 당일 오후 7시 30분 시작해 10시까지 150분간 이어졌다. 독주회는 오는 19일 전파를 탈 예정이다.

'유폐레쉬'가 마무리되기 전에 유재석은 새 프로젝트 '뽕포유'도 시작했다. 그는

이번에는 신인가수 '유산슬'로서 트로트 장르에 도전하게 됐다.

재지 넘치는 유재석과 박현우 작곡가의 재빠른 호흡은 중독성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무장한 데뷔곡 '합정역 5번 출구'를 탄생시켜 시청자 눈과 귀를 끌었다.

1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은 4.8%~5.5%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광고주 주요 지표인 20~49세 시청률은 수도권 기준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최고의 1분'은 '합정역 5번 출구'의 뮤직비디오 장면으로 시청률이 8.1%로 집계됐다. 예고편에서는 '트로트 대세' 송가인 등 장래 유재석에게 '합정역 5번 출구'를 맛깔나게 부르는 방법을 전수했다.

게다가 두 사람의 특급 듀엣이 예고돼 관심을 모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잠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UHD 특선 드라마 W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실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조선로코-녹두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전국시대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정재영의 이슈IN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30 헬로킴즈 동물교실 2(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리	20 뽀뽀보 모모야 놀자 스페셜 50 뽀뽀보 모모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셀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	00 월드컵 베스트 다큐 그곳에 가면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썸바이벌 1+1(재)	00 5 MBC 뉴스 2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생생정보 스페셜 20 2019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키움:SK)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30 MBC스포츠 올림픽 축구대표팀 친선경기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00 법률 365 05 시사타치! 따따부따
8	30 여름아 부탁해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조선로코-녹두전	00 MBC 뉴스데스크 55 한글날 특집 겨레말모이	0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1	00 더 라이브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0 다큐멘터리 3일(재)	55 스포츠 다이어리	
12	35 KBS 뉴스 45 이웃집 찰스(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영상앨범 진(재)	10 스포츠특선	00 나이트 라인 30 앙코르 고향견문록 스페셜

EBS1

07:00 로보가 폴리	13:00 EBS 다큐프라임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별일 없이 산다	19:00 스파이더맨
08:00 똥덩이 유치원	14:45 물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띠띠뽀 띠띠뽀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가 폴리(재)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9:00 출동! 슈퍼윙스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15 마사와 곰	15:55 출동! 슈퍼윙스(재)	<중국 도읍지 전(傳) -서방은 로마, 동방은 장안>
09:30 원더볼츠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30 한국기행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사와 곰(재)	<추중진미, 특매기 1부 추억이 보글보글>
10:30 한국기행(재)	16:40 똥덩이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3:35 별일 없이 산다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띠띠뽀 띠띠뽀(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4일(음 9월 16일 甲申) ☎ 010-9790-8237

<p>36년생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지만 용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48년생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0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없어서 애가 타겠다. 72년생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84년생 기본 계획에 변경이 생기면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느니라. 96년생 완전히 개선하지 않으면 해롭다. 행운의 숫자 : 24, 87</p>	<p>30년생 심혈을 기울이면 노력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42년생 망설이지 말고 두드린다면 열릴 것이다. 54년생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연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수다. 66년생 갈급한 마무리는 많은 이익을 불러올 수도 있다. 78년생 본격적인 궤도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90년생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행운의 숫자 : 96, 10</p>
<p>37년생 시선이 가지 않았던 곳에 관심을 돌릴 때다. 49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이 겹치리라. 61년생 주저하다가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73년생 즉흥적인 조치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 하자. 85년생 열린 시각으로 살펴야 제대로 볼 수 있다. 97년생 평상시에는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7, 81</p>	<p>31년생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43년생 핵심적인 가지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되겠다. 55년생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거나 상황을 낙관한 나머지 무리한다면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67년생 심하게 치우쳐 있으니 바로 잡아야겠다. 79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 91년생 정리정돈하기에 좋은 날이다. 행운의 숫자 : 68, 58</p>
<p>38년생 매사가 상대적임을 알라. 50년생 무난한 결과에 이르렀다. 62년생 되풀이 한다고 해서 만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4년생 상당히 높은 궤도로 오르면서 비약적인 발전에 꺾이게 된다. 86년생 오버 센스하다가 허방을 짚을 수도 있느니라. 98년생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커다란 진전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1, 66</p>	<p>32년생 버리느냐 함께 가느냐하는 중대기로 놓인다. 44년생 불안전하지만 속 태울 정도는 아니다. 56년생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가치를 따져볼 일이다. 68년생 활선 더 나은 조건이 갖추어지겠다. 80년생 초심을 잃지 않은 원칙적 설정이 길사로 이끈다. 92년생 상대의 뜻에 반한다면 매우 불만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2, 39</p>
<p>39년생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로 향하고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하자. 51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63년생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75년생 장애물이 보이니 조심하자. 87년생 사소한 일이라면 대범하게 넘어 가자. 99년생 유사한 모습이지만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7, 03</p>	<p>33년생 판국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리라. 45년생 가지 않는 길을 살펴본다면 얻는 바가 있으리라. 57년생 임시변통적인 처리는 곧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69년생 심기일전한다면 활기찬 미래를 열 수 있다. 81년생 뜨거운 화재거리가 보인다. 93년생 원만한 계획으로 임해야 값진 수확을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4, 24</p>
<p>40년생 배려된 일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판세이다. 52년생 행운이 들어오고 있으나 변수도 작용한다. 64년생 정확하게 가리지 않는다면 손해가 커지는 정황이다. 76년생 자제히 들여다보면 미흡한 점이 보일 것이다. 88년생 쌓아온 공로가 자신의 입으로 무너질까 걱정된다. 00년생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봐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0, 28</p>	<p>34년생 마음을 비우면 그만이다. 46년생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58년생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어야만 진정한 목표를 달성한다. 70년생 소중히 여겨 왔던 것이 빛을 보게 된다. 82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탐비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94년생 신중하지 않으면 손재수가 생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5, 90</p>
<p>41년생 계획대로 조처한다면 성공의 길을 이끄는 열쇠가 보인다. 53년생 도약의 발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65년생 근본적인 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77년생 하루가 다르게 변할 수도 있다. 89년생 과감한 결단이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01년생 성부의 행방을 좌우하는 분기점에 서리라. 행운의 숫자 : 34, 49</p>	<p>35년생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국면이다. 47년생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말라. 59년생 대세는 기울었다. 71년생 얼마나 근사치에 접근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되리라. 83년생 기존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가 보인다. 95년생 애초의 성황에서 특별한 형태로 변모될 것임에 틀림없다. 행운의 숫자 : 19, 18</p>